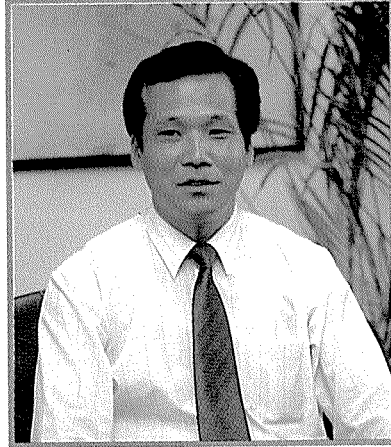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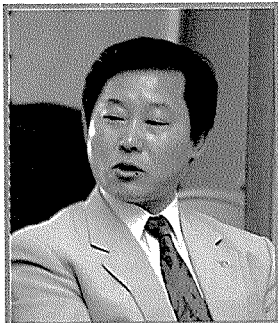


# 전주시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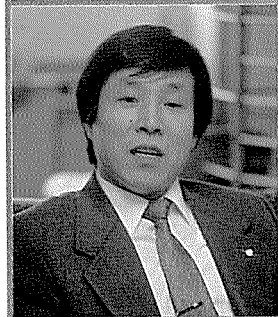
## 새로운 도약... 회원과 함께 호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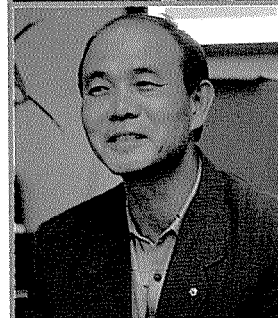
임 태 희 지부장



강 대 윤 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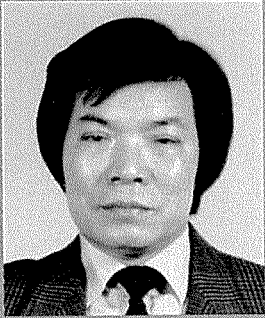
전 서 봉 부지부장



강 성 구 고문



신 기 택 고문



김 정 곤 고문

전주시 지부는  
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기획실, 홍보실, 지부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회원과 함께  
호흡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흔히 우리는 남도라 일컫는 호남지역을 예향(藝鄕)의 고장이라고 부른다.

타지역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우리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아직도 면면이 살아 숨 쉬며 계승 발전돼 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남도인치고 구성진 판소리 한 가락 뽑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술적 기질이 넘쳐나는 곳이 이곳이고 넉넉한 마음씨에 푸근한 인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이다.

전주·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다 보면 탁트인 평야지대가 펼쳐지면서 만나게 되는 이 도시는 특히 예로부터 광주와 함께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로 판소리와 태극선, 한지(韓紙), 비빔밥으로 이름난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오랜세월 막힐 것 없는 넓은 평야를 삶의 터전으로 그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면서 살고 있는 푸근한 마음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전주시 지부(지부장 임태희)는 전주시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부이다. 이는 전주시 지부가 1968년에 창립돼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초창기 전주시 지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느 지회 및 지부에 비해 활성화된 지부였다고 한다. 신생 도시가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주시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회원수에 있어서도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개발부진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가 전주시 지부가 더 발전하는 데 걸림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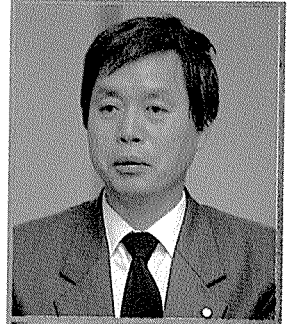
사실 전주지역의 제과점들은 영세한 편이다. 회원 업소 150여개 중 70%가 넘는 업소가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기술자를 두고 있다.

시장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 부부운영의 업소는 괜찮으나 나머지 업소는 인건비,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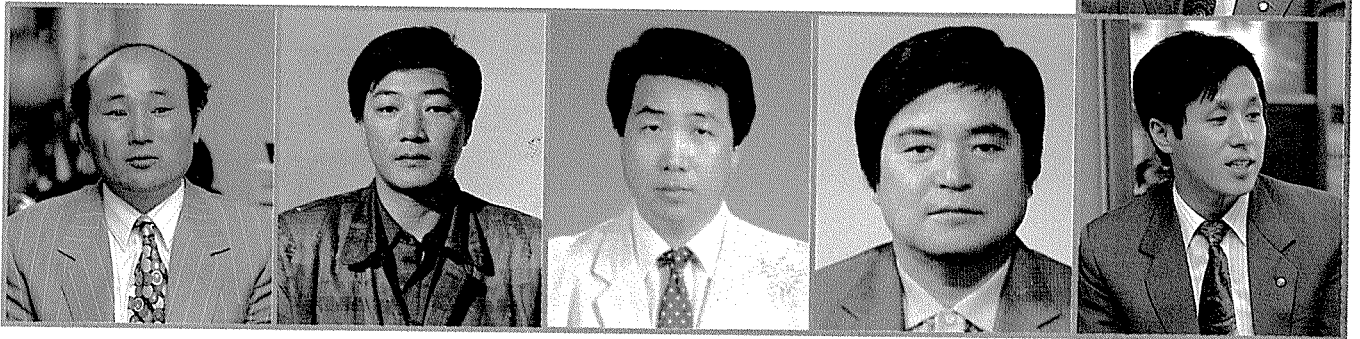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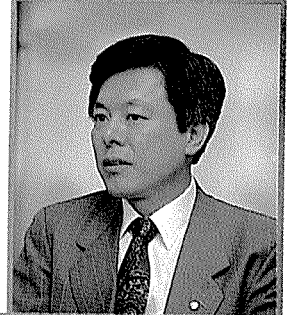
대료 등의 압박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 지부가 지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술 인력 수급과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런 사실은 전주시 지부 협회 사무실을 들어서면 곧 발견된다. 사무실의 절반을 차지한 공간에는 오븐과 믹서, 작업대, 각종 소도구가 설치돼 있고 한켠 진열장에 제과 실습에 쓰이는 마아가린, 버터, 쇼트닝, 각종 과일향, 베이킹캡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지부가 지난 91년 사무실 이전과 함께 마련한 세미나실이 바로 이것이다. 전주시 지부는 현재 이 세미나실을 지역 농고 학생들에게 개방해 여기서 실습을 하고 기술을 익힌 학생들이 회원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수급에 일조하고

윤 항 기 이사



안 순 영 이사



이 한 우 이사

이 동 호 이사

유 영 수 감사

송 근 형 감사

박 남 식 기획실장

있다. 또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모임이 많은 만큼 회원들이 5~10명씩 그룹별로 수시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 기술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주시 지부 제과업계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모임이 많다. 동 단위로 계 형식의 모임이 결성돼 있어 애경사나 친목 도모의 활동이 활발하다.

전주시 지부는 이런 회원간의 상호 친목 도모가 지역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부 차원으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 올해 화합차원의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30일 정기 총회시 임원 구성과 함께 전국 어느 지회 지부에도 없는 기획실장과 홍보실장 자리를 신설한 것이다.

각 업소를 방문해 회원들이 지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회원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시 지부는 올해 회원 단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회원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협회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원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16절지 4페이지 분량의 협회 소식지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밖에 최근들어 점포 운영에 관한 경영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강사 초청 경영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주시 지부,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곳의 여건은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주시 지부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어느 지회 지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미나실 설치로 인한 기술향상 노력이 그렇고 유례없는 기획실과 홍보실 마련, 지부 소식지 발간 계획 등이 전주시 지부의 노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도약하는 전주시지부, 우리는 머지 않아 새롭게 달라진 전주시 지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글 박종선>

황 진 익 상무



이 관 용 총무

